

## 문장 성분 - 주성분

문장에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을 주성분... 이라고 한다.

1. 주어 : 한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예) 총서년의 일탄 행동은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더 높다.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상할 것이다.

2. 서술어: 한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설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친구가 웃는다	
가	ㄴ
주어	서술어

동생이 예쁘다	
가	ㄴ
주어	서술어

나는 대학생이다	
가	ㄴ
주어	서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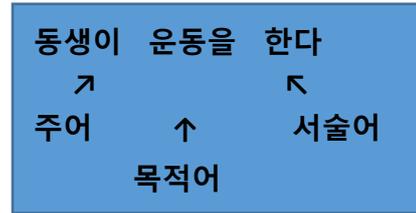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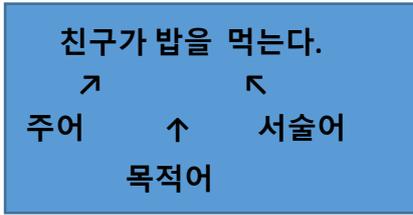
예) 요즘 한국에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2013 년보다 2014 년 실업률이 더 높다

지구에 있는 많은 섬들이 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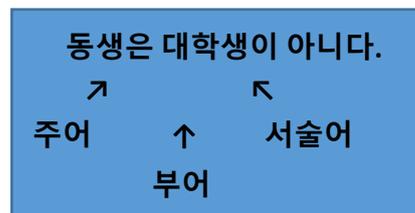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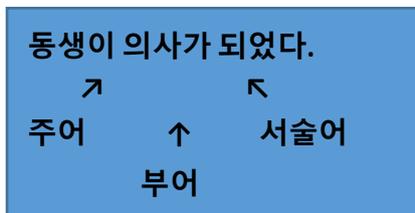
<그래프 1>은 통계청이 2014 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3. 목적어: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예) 관광지가 사라진다면 먼저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가수의 노래들이 음악 관련 순위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다.  
일다시피 삼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수를 방출한다.

4. 보어: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문장의 뜻을 완전하게 보충하는 말.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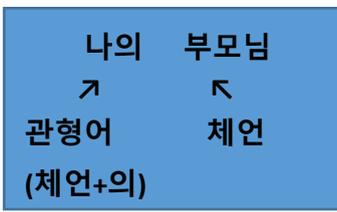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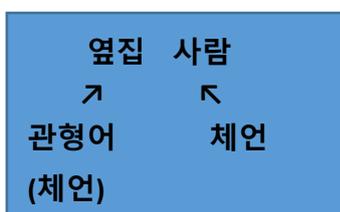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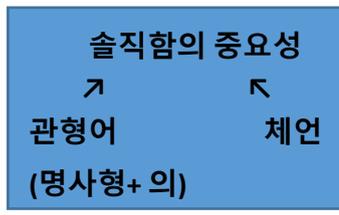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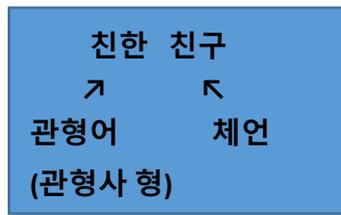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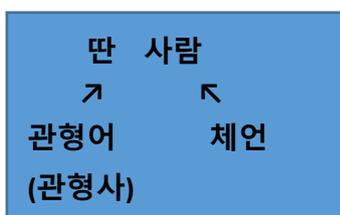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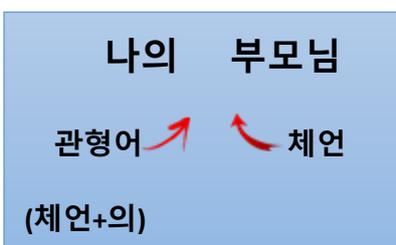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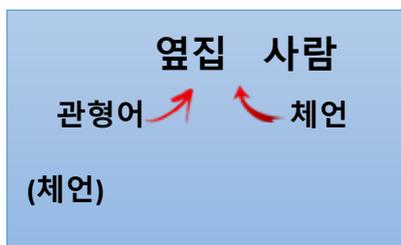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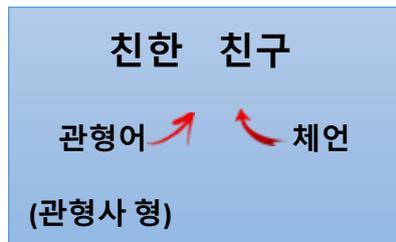


예)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온난화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해질 것이다.  
2006년 8월 16일 중국 중경의 제일 높은 기온이 43°C가 되었다.  
그 그룹의 공연은 화자의 무대가 아니라 단체 무대라는 인상을 준다.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 문장 성분 - 부속 성분

문장에는 그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를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하여 주는 문장 성분을 '부속 성분' 이라고 한다.

1. 관형어 :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말. 관형사,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붙는 관형격 조사 '의' 따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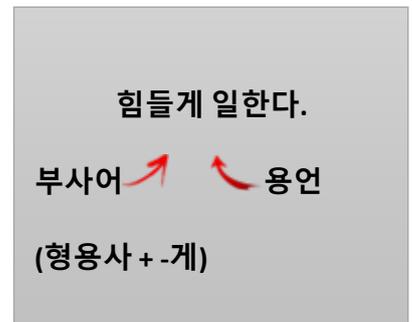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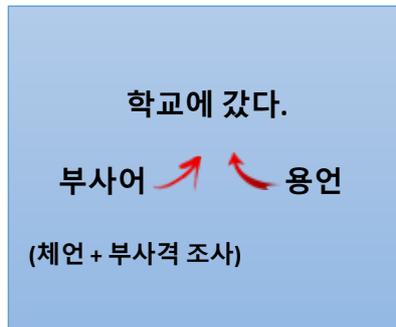
예)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온난화란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멤버들의 음악성과 음악적인 특징 분석

투자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2. 부사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말.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 .  
어절 . 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어미 '-게' 로 활용한  
형용사 따위가 있다.**



예)잘못하면 건강이 금방 나빠진다.

독일도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정보와 사람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3. 독립어: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  
감탄사, 호격 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대답하는 말, 문장 접속 부사  
따위가 있다.**

아, 예쁘다.  
독립어   
(감탄사)

진호야, 가자.  
독립어   
(이름 + 호격 조사)

네, 학생이에요.  
독립어   
(대답하는 말)

주말에는 보통 친구들 만났다. 그리고 밀린 집안일을 한다.  
독립어   
(문장 접속 부사)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생존하는 환경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동식물들은 사람과 달리 움직이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죽을 수 밖에 없다.

Kaynak: 김건환, 유하라, 현원숙, 김희경, 오광근, 홍은실,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